

특강-한암대중사의 입멸관

정념 스님 (월정사 주지)

'삶과 죽음 없는 도리를 확연히 써라(用無生死)' 월정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3월 17일부터 6주간 공동주최하는 '제2기 한암대중사 수행학림'에서 주지 정념 스님은 "없는 채로 열반에 든 한암 스님은 생사가 돌아남을 중생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절대 흔들림 없이 여법한 모습을 보여, 스스로 일생의 수행을 점검한 한암 스님. '한암 스님의 입멸관'을 주제로 진행된 정념 스님의 강의 내용을 요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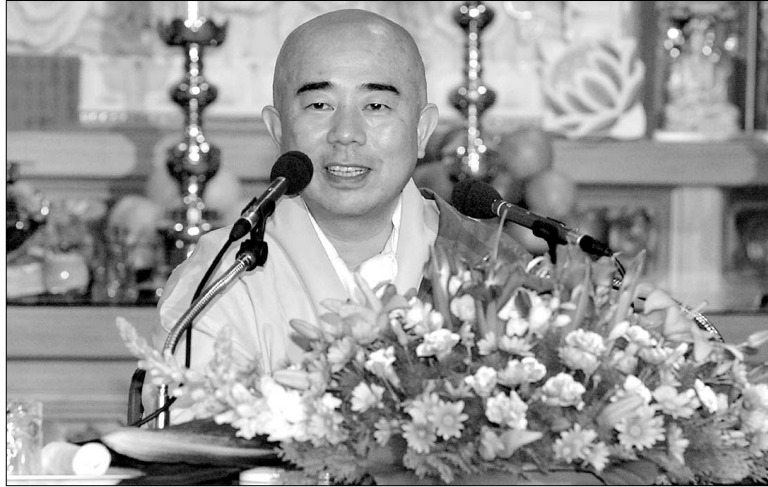
궁극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는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대사안연은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합니다. 종교도 수행도 생사의 문제를 극복할 때, 비로소 완전한 행복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삶에 집착과 죽음의 공포는 진리의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진리의 실상에서는 오고 가고,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즉 생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오류적 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깨뜨리려면, 진리를 증득하고 깨달음을 성취해야 합니다. 나고 죽음이 원래 '달이 아니다'는 깨달음의 실상을 확연하게 자기 체득해야 생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1951년 음력 2월 14일, 오대산 상원사에서 열반하신 한암 스님이 그렸습니다. 스님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생사가 돌아 아남을 잊는 그대로 확연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응무생사(用無生死) 생사 없는 도리를 씀을 우리 앞에서 보인 것입니다.

당시 한암 스님이 열반에 드실 때는 양력으로 초봄에 해당했지만, 겨울이 긴 오대산 상원사는 여전히 눈덮인 산하였습니다. 상원사 선원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 대중은 모두 남쪽으로 피난가고 스님 옆에는 만화(萬花) 스님과 공양주보살님이었습니

'삶과 죽음' 둘 아님 보여준 생생한 가르침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한암 스님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스스로 일생의 수행을 점검한 선지사이었다"며 "본래 가고 올 이 없음을 깨달으면 죽음도 혼연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법론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다. 상원사가 불태워질 처지에 놓인 것을 몸으로 막은 스님은 봄에 가벼운 병세를 보였지요.

7일 째 되던 날 아침, 일찍 스님은 시자를 불러서 "오늘이 음력으로 2월 14일이지"하고 물고는 아랫마을로 심부름 보낸 뒤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는 단정히 가부좌하고 앉아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옆에는 공양주보살이 조실스님 방을 청소하고 있었지만 청소 할 참선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참선을 하시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암 스님의 열반 모습은 좌탈입망(坐脫立亡) 가운데, '좌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한국 고승 가운데 열반할 때, 좌탈한 예는 아마 한암 스님 한 분일 것입니다. 앓은 그대로 열반을 맞이한다는 것은 금강석같은 수행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의지가 죽음이 이르러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설사 정신을 잃지는 않더라도 신체를 가누지 못합니다. 부처님이나 한암 스님처럼 자신의 육체가 죽음이 압박했을

을 알고, 또 가는 날을 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범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생사 없는 도리를 자유자재하게 썼던 한암 스님의 가르침에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생명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낍니다. 때문에 완전한 행복의 성취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주

오늘 현대를 사는 재가자들은 스님의 열반상을 보면서 응무생사의 이치를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또 자기 자신과 객관계(客觀界)를 바라보는 정견을 갖춰야 합니다. 나와 객관계가 본래 비어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7년 동안 산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생전에 그 흔한 법문집조차 남기지 않았던 한암 스님이 간혹선 공부법을 간명직결하게 규명한 문집인 <선문답21조>에서도 스님의 열반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선문답21조> 중에서 20조에서 보면, 어떤 수행자가 한암 스님에게 "이미 생사를 초탈했다면, 같은 곳을 알아야 할 것이니, 사대(四丈)가 각기 나누어짐에 어느 곳을 향해 가야 하나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일면불(一面佛) 월면불(月面佛)이


생사 극복할때 비로소 완전한 행복 죽음 문제는 진리의 착각에서 비롯 중생계의 양극단적 견해 경계해야

나라"고 했습니다.

이 조문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근본 실상에서는 가고 올의 문제가 결국, 가도 어디로 갔다든지 와도 어디에서 왔다든지 같은 중생계의 양극단적인 견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견해는 양변을 떠나지 못해 갖는 의문인 것입니다. 본분의 문제는 '있다 없다'의 유무 차원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궁극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문 자체는 스스로 증득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치로 설명하고 일응일어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생사의 문제, 나고 죽음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

근대 암흑기 한국불교 일으켜



한암 스님(1876~1951)은 근대 한국 불교의 고승으로, 조선의 망국과 한일합방, 일제 식민지, 그리고 해방과 한국전쟁의 역사적 소용돌이를 직접 목도했던 선지사이자, 조선불교 선교양종의 종정 및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역임하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종정을 맡았던 스님은 암흑기에 한국불교 증흥과 전통 한국선의 부흥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스님은 특히 종정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일체 명예는 연연하지 않았다. 스님은 1925년 서울 불은사 조실로 있다가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필지언정 삼촌(三叢)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 하면서 오대산에 들어갔다. 이후 오직 상원사 선원에서 27년 동안 두문불출, 참선수행과 남자 지도에만 전념했다. 대강백으로 추앙받는 탄해 스님을 비롯 수많은 스님들을 제자로 두었다.

다. 그것이 한암 스님의 일생이었고, 마지막 순간에서도 앉아서 열반에 든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실제 '죽음'이란 마주침에 일대사의 모든 경계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천하의 도를 탐하고, 호언장담을 해도 실제로 죽음이란 본분과 부딪혔을 때,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한암 스님은 이런 죽음이 있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여법한 모습을 보여 일생 수행의 집점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오복 중의 하나입니다. 죽음이란 인연을 분명히 맞이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든 상관없이 생사의 이치를 확연히 타파한 수행자에게는 복이 있든 없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죽음에 대해 본래 가고 올 이 없음을 깨달으면, 죽음도 혼연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수행을 하는 까닭입니다. 수행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리/평창 월정사=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아빠다 코스

나뭇잎 찾아 떠나는 9월간의 내연여행!

너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맑은길 사뵈다 센터 전주시는 본회는 언제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퍼터 마스터 김희관

● 전학문의 상담 환경
서울시 황포동 154-1 전화 010-6230-2113 fax 021396-2736
http://www.araticenter.co.kr E-mail heepgyn@aratic21.com

죽음 예고 ... 선택한 시간에 열반

■ '전등록'으로 본 좌탈입망 일화

중국 선종의 역사서인 <전등록>에 보면 좌탈입망(坐脫立亡)한 예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한 다음 선택한 시간에 열반을 맞이한 선사들을 소개한다.

#자신의 제사를 먼저 치르게 한 화산덕보 선사
임제종 황룡파의 화산덕보(禾山德普, 1025~1091) 선사는 입적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자신의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스승이 보는 앞에서 미리 스승의 제사를 지내도록 했으니 제수(祭需, 제사 음식)가 진수성찬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한 시간 이상 제자들이 울리는 음식과 절을 모두 받고

나서 "내일 맑은 하늘에 눈이 내리던 가겠다"고 하고는 정말 다음 날 눈이 내리자 항을 사르고 단정히 앉아서 입적했다.

#제발로 관에 들어가 입적 및 묘화선사
임제의현(臨濟義顯, ?-866)의 도반인 보화(普化) 선사가 하루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승복을 구걸했다. 사람들이 모두 승복을 갖다 주었지만, 보화 선사는 웬 일인지 "모두 필요 없다"고 받지 않았다. 임제선사는 원주를 시켜 관(棺)을 하나 사 오게 했다. 그러고는 보화선사에게 "내가 그대를 위하여 승복을 한 벌 만들어 놓았소." 그러자 보화 선사는 기분 좋게 골바로 관을 짊어지고 거리로 나가 "내일 내가 등문 밖에서 세상을 죽겠다"고 선언했다.



한암 스님의 좌탈 열반 모습(1951년 음력 2월 14일).

하지만 그림은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3일, 4일째 되는 날엔 그 누구도 스님의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보화 선사는 혼자 관 속으로 들어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무엇에 못질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소식이 즉시 시내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관 뚜껑을 열어보았다. 열어보니 법구는 보이지 않고 몸 전체가 완전히 사

라져 버린 것. 공중에서 요령소리만 울릴 뿐이었다. **#물구나무 서서 입적한 등은봉 선사**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선사의 제자인 등은봉(鄧隱峰) 선사는 평소에도 괴팍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루는 제자들에게 "고래(古來)로 서서 죽은 사람도 있는가?"고 묻자, 제자들이 "있습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렇다면 거꾸로 서서 죽은 사람도 있는가?"고 되물자, 제자들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등은봉 선사는 갑자기 물구나무서기를 하고는 그대로 입적해 버렸다.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았다. 이 기괴한 소식을 듣고 속가 누이 비구니스님이 달려 왔다. 누이동생이 "오라버니는 생전에도 괴팍한 행동만 일삼더니 죽어서도 계속 골방을 먹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짓이야?"고 하면서 폼팍하고 서 있는 오빠의 법구를 '탁' 치니 그대로 넘어갔다고 한다.

목조건축



◆ 현대식건축 목조 + 빔

- 제일 튼튼한 집 150년 이상 보장
- 제일 저렴한 한옥집 평당 200만원대

◆ 목조건축

- 육송, 낙송, 수입목 다양보유
- 타사 건축업체와 견적서를 받아보셨습니까?
- 목조건축을 350만원대에 시공합니다. 나무 시세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

TEL 043)848-5311, 3
H·P 010-6399-5311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앰플, 설비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 고성능 무선마이크
- ▷ 각종 마이크 판매
-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나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사암침술 강좌안내

탁월한 치료효과

차원높은 사암침술을 3개월만에 배울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맨투맨 방식의 완벽한 실습 위주로 교육하며 3개월 후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강은 4월 3일이며 월화반 수목반 야간반이 있습니다.

문의 051)804-8571
018-312-7110

위치:지하철 1호선 부전동역 4번출구
사암침술학회 부산지회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고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고
기름보일러를 생각하고계셨다면 (난방비 50% 절감)
(난방비 70% 절감)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주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 실내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설치하면 좋은곳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 벽 시공 가능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FILM HEATING 대체에너지(주)
천안·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화엄산림-제1강(1~6품)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원용의 눈으로 보면 깨달음이고, 이원으로 바라보면 분별이 된다.’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이 3월 18일, 월정사 수행학림 입재 이틀날 대법륜전에서 열린 ‘화엄산림’에서 법문한 <화엄경>의 핵심 도리다. 본래 원용무애한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 있지 않지만, 중생들은 늘 미망의 꿈을 꿰 온갖 고통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의미다. ‘깨닫고 보면, 한 걸음도 옮긴 적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화엄경> . <화엄경> 1품에서 6품까지를 강설한 스님의 법문을 요약한다.



종범 스님

고 합니다. 삼불이 원용한 신앙 구조가 모든 의식에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한국불교입니다. 때문에 화엄 신앙을 조망하지 않고는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엄경>은 <화엄부>라 불릴 정도로 방대한 분량입니다. 80권 60권 40권 등 한역권 <화엄경>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가불자들이 <화엄경>하면, 금세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들을 위한 화엄 신앙이 나오게 되죠. 의상 대사의 ‘법성계(法性鬘)’와 ‘약찬계(略纂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80권의 방대한 분량을 읽고 연구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손쉬운 <화엄경> 공부법을 알려준 것이 ‘약찬계’와 ‘법성계’입니다.

먼저 약찬계에는 <화엄경>의 구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품수와 등장인물 등 중요한 정보와 항목이 묶여 있으며, 의상 스님의 법성계에는 오로지 그 내용과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순전히 화엄의 내용만 말해놓았지요. 그래서 법성계와 약찬계를 외면 화엄의 구성과 내용이 그대로 한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7언 30승 210자’로 된 <법성계>의 첫 구절을 살펴볼까요.

‘법성원용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 무명무상절일제(無名無相絕一切) 증지소지비여경(證智所知非餘境)’
법성은 원용해 돌이 없고, 제법은 부동해 적멸상이다.

가는 곳마다 본래 자리, 이르는 곳마다 출발지

이름도 모양도 모두 없으니, 증득한 지혜로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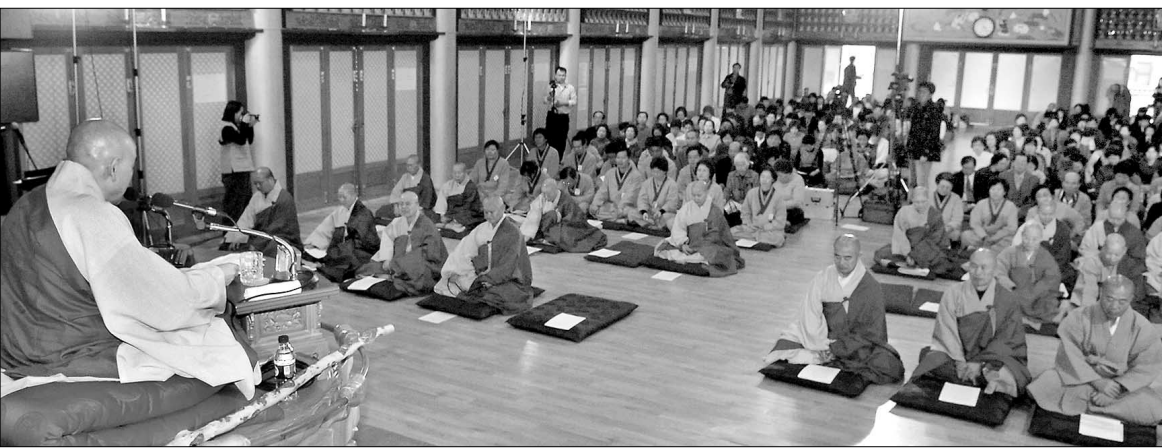
법성은 무엇일까요? 은 우주 법계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원용해서 돌이 없지요. 원용은 시작이 바로 끝이고 끝이 곧 시작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원용입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돌이 없습니 다. 그런데 생각에는 돌이 있어요. 법성과 생각이 들어맞으면 되는데, 맞지 않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둘로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왜 그렇지?’ 행복과 불행, 참과 거짓, 있고 없음 등으로 나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돌이 아니에요. 원용이죠. 원용성으로 보면 깨달음이고, 이원성으로 보면 분별이 됩니다. 분별은 둘로 갈라보게 하죠. 모든 고통과 대립은 둘에서 오는 겁니다. 원용에서 보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집착할 것도 아니고, 나쁜

“우주 법계의 본성인 법성은 원용해서 돌이 없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보이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것 고통과 대립, 둘로 보는데서 시작

“것을 싫어할 것도 아니지요. 이것이 ‘법성원용무이상’입니다. 그래서 제법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고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성의 세계를 이름 붙이고 모양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까? 문제는 ‘지혜와 생각’입니다. 지혜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생각에 매이면 모든 고통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기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자기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있습니다.

감정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상 스님의 유명한 ‘10전’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동전 10개를 보는 관점이 핵심입니다. ‘1전을 중시하느냐’ ‘10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즉(則)’과 ‘중(中)’의 도리입니다. 즉은 일즉십(一則十), ‘하나가 곧 열이다’는 시가지고, 중은 십중일(十中一), ‘열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관점이지요. 같은 하나인데 이 하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자기를 사랑하는 노력이기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이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한인대중사 수행학림 입재 이틀날인 3월 18일 ‘화엄경’을 강설하고 있다.

에, 자신 하나를 모든 우주로 봅니다. 내가 없으면 사람도 우주도 없다는 생각이죠. 반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들을 전체 중의 하나로 봅니다. ‘즉’과 ‘중’ 도리가 서로 부딪치면서 헛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시상정각(始成正覺)’, 처음부터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은 정각의 세계를 설명하죠. 깨닫고 보니 보이는 세계부터 달라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습니 다. ‘일즉십’ 도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밖에 없는 데, 다른 사람은 왜 나를 나처럼 봐주지 않는가.’ 즉 ‘열중일’의 시각과 부딪치는 것이지요. 법성계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다라니무진보(以陀羅尼無盡寶) 장엄법계실보전(莊嚴法界實寶藏) 공좌실제중도상(空坐實際中道床) 구래부동명위불(舊來不動名爲佛) 지혜의 무진보로 은 세계를 아름답게 장엄한다. 실제의 진실한 중도상에 있으면 예부터 그대로니 부처이다.’

다라니는 ‘없는 것 없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지요. 또 총지(總智라고도 합니다. 보배로 말하면, 쓰고 또 써도 줄지 않는 지혜보배라고 합니다. 지혜로써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일으키면 무진보가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랑을 만들고 줄 수 있는데, 그것을 팔라서 자기도 남도 괴롭히는 것이지요. 지혜로써 알고 보면, 항상 원용무애한 중도상에 앉아 있고, 본래 원용무애한 자리에 한 발짝도 물러나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늘 미망의 꿈을 꿰 온갖 고통을 스스로 만들고 밟는 것이지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꿈을 깨면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닫고 보면, 한 걸음도 옮긴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부처지요. 이것이 화엄의 골수입니다. 이를 의상 스님이 <법계도기흥수록(法界圖記興)

龍藏> 권상1에서 ‘행행분처 지지발처(行行本處 至至發處)’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본래 자리요, 이르는 곳마다 출발지’라는 뜻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본래자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혀 ‘죽고 살’ 적격으로 고통을 받지요. 가나오나 본래 자리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스스로 들로 보는 생각 때문에 모르는 것이예요. 자기 집에 있다 해도 꿈을 꾸면, 자기집인 줄 모르지요? 꿈을 깨면 본래 자기집임을 압니다. <화엄경>은 이처럼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오늘 강설할 부분은 <화엄경> 초회 6품에는 제주 도묘품(世主妙嚴品) 여래현상품(如來現相品) 보현삼매품(普賢三昧品) 세계성취품(世界成就品) 화장세계품(華藏世界品) 비로자나품(毘盧遮那品) 등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화엄경>은 부처님이 성불했을 때의 광경을 설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초회 6품은 부처님이 성불한 세계를 설명해요. 먼저 ‘제1 세주도묘품’에서 기막힌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화엄경>은 ‘시상정각(始成正覺)’, 처음부터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은 정각의 세계를 설명하죠. 깨닫고 보니 보이는 세계부터 달라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습니 다. ‘일즉십’ 도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밖에 없는 데, 다른 사람은 왜 나를 나처럼 봐주지 않는가.’ 즉 ‘열중일’의 시각과 부딪치는 것이지요. 법성계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불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써 해결되고 완성된다는 뜻이죠. 지금 이 순간 무량한 업집의 과거 현재 미래 를 보는데 걸림이 없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최고 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면, 삼체에 들어가 평등하고 몸이 일체 세간에 가득해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고 우리들의 세계입니다.

“자기 마음 늘 관조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라는 마음을 늘 들여다 보면 상대방이 믿지 않아요

“우리는 <화엄경>을 통해 일상에서 지혜를 깨발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 돌아가면 모두 해결 됩니다. ‘관조(觀照)’가 필요해요. 자기를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날에는 특히 자기를 행기고 돌아보는 노력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원망을 많이 하고 사는 것이 요즘 세상인데, 마음 챙기는 수행이 더욱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늘 관조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라는 대로 해주질 않아 고통스럽고 미운 그 마음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지요. 바라는 마음을 늘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믿지 않아요. 이것이 관조예요. 다음은 수행입니다. 마음 공부죠. 끊임없이 닦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공부할 때대로 익히면,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관조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병창 월정사-김철우 기자

* ‘한인대중사 수행학림’ 기사로 인해 18면의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와 19면의 ‘일타가 도랑입니다’ 연재를 6주간 쉽니다.

52週 1년에 50만배 2年 1백만배 기도도량

惡業을 지은 사람이 다시 惡業을 지으면 壽命이 짧아져 일찍 죽어 그 果報를 地獄에서 받는다. 그러나 惡業을 지은 사람이라도 善業을 지으면 壽命이 길어져 그 果報를 現在에서 받게되며 그 받는 苦痛은 地獄에서 받는 것 보다 지극히 가볍고 작다. 절은 위와 같은 現實에서 본다면 自身을 닦아서 下心하므로 惡業을 善業으로 바뀌는 修行이며 心身を 同時に 단련하는 수행이다. 또한 절 수행은 호흡에 있어서도 단전 호흡과 梵音을 습득하여 일상화 할수 있으며, 氣를 받아들여 眞氣는 배출하여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이 확실하게 이루어 지고 惡業의 苦痛을 가볍고 작게하는 수행이다.

※ 4회 참석자에 한하여 法憲스님이 직접 쓴 범어로 된 신묘장구다라니(장민불 명호칭 대신할 수 있음)을 증정함 ※ 자정 저녁참(호박죽)제공

◆ 필수수행법: 집에서 매일 108염주를 11회 절하시면 1,188배 6월 7,12배 법륜사에서 3,028배 1주당 10,156배 × 1년 52주 곱하면 1년 528,000배 × 2년 = 1백만배

◆ 동행금: 20,000원

◆ 준비물: 기도도, 면수건, 면양말, 기도복(출입복 따로)

● 법륜사 오시는 길: 전철 1호선 동양역 북부역에서 율동행 42번 버스 중정하차

전화 032)583-2003 핸드폰 010-3376-4268 法憲 합장

경포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부대중 불자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집중수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숲속 향기와 목조 향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정

- 1차: 2006년 4월 8일 - 14일(6박7일)
지도: 우 도다나 사이도 • 동역: 범라스님
정원: 15명(선착순) • 대상: 일반인
- 2차: 2006년 5월 13일 - 19일(6박7일)
지도: 우 안달라 사이도 • 동역: 범라스님
정원: 15명(선착순) • 대상: 일반인
- 3차: 2006년 6월 10일 - 16일(6박7일)
지도: 우 예디나까 사이도 • 동역: 혜승스님
정원: 20명(선착순) • 대상: 일반인

● 수행장소: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 수행내용: 위빠사나 수행, 법문, 수계

● 입실 및 회향시간: 시작 날 오후 5시, 끝나는 날 오전 12시

● 참가비: 15만원(우체국 201780-01-001463 담마선원)

● 준비물: 수행에 관한 북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033)644-1786, H · P 011-497-9535 E-Mail: dhamma53@hanmail.net

● 주간 수행반 접수: 강릉에 소재하신 분들은 아침 9:00부터 저녁 5:00까지 낮 시간을 이용하여 위의 7일간의 집중수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점심공양이 제공되고 회비는 7만원이며, 10명 선착순 마감입니다.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 **자세법**: 기부좌, 반기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례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계자세, 일어서 자세, 행선, 오선

▶ **호흡법**: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키퍼터, 수형함)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허풍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①로코에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젠가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장애가 되며, 만병의 근원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②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처음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법, 화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발·목·허리 냉증, 무릎염,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칠,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명상성공 호흡이와 다음에 참고 바랍니다

▶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부산 금정법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02) 456-0035 부산금정법당: 051) 583-7886 청견스님: 011) 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제1회 부처님 정통수행법 Sait(正念) Workshop

솔바른 부처님 수행법의 정립이 요청되는 이즈음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과 함께 수행 workshop을 갖습니다. 부처님 정통수행에 관심이 있는 스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4월 5일 오후 5시 ~ 8일 정오 12시(3박 4일)
- 장 소: 다보산반나라마(부산)
- 대 상: 5년이상 비구(니)
- 참가비: 3만원
- 내 용: ① 부처님 정통수행법 이론과 실기 ② 짜피수행 · 간화선 · 목조선 · 위빠사나 비교 ③ 수행 프로그램 개발 (템플스테이, 수련회, 법회 등)
- 준 비 물: 가사
- 지도법사: 불·하·빠·라(本願)스님

문의 및 접수 www.pannarama.net 011-1700-2841, (055)331-2841 반나라마 Sati School